

특수인공수정체 삽입 ... 백내장과 노안·난시 교정 동시에

건강 바로 알기 노안·백내장 수술

김재봉 광주신세계안과 원장

회사원 최모(57)씨는 시력이 저하되고 눈이 점점해지는 증상으로 안과를 찾았다가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 이에 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던 도중 평소 착용하던 돋보기를 수술로 벗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책을 읽을 때마다 돋보기를 써야 해서 불편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참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70대 이상의 노인성 질환으로 생각했는데 50대에 백내장이 올 수 있다는 말에 허탈했다"며 "하지만 수술로 돋보기를 벗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오히려 짝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노안·백내장 수술에 대해 광주신세계안과 김재봉 대표원장에게 들어보자.

◇ 3대 수술 중 1위 백내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받는 수술 중 하나는 백내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87만여건의 수술 중 백내장 수술이 59만 21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백내장 수술은 제왕절개수술, 치핵수술과 함께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3대 수술 중 1위로 꼽히며, 매년 환자수도 증가하고 있다.

백내장은 눈의 초점을 조절하는 수정체가 노화로 인해 변성되면서 부엌에 안개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원거리·근거리·중간거리 모두 선명할 아닌 레이저로 수술 ... 자신에 꼭 맞는 렌즈 선택이 중요

낀 것처럼 보이는 질환이다. 백내장이 있으면 눈앞이 안개 낀 것처럼 흐리게 보인다. 어두운 곳보다 밝은 곳에서 증상이 심해진다. 이외에도 ▲눈부심 ▲눈 찢짐 ▲시력 저하 ▲사물이 겹쳐보임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한번 생긴 백내장은 좋아지지 않고 수술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초기 백내장의 경우에는 약물을 이용해 진행의 속도를 늦추기는 하지만 시력을 회복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흔탁된 수정체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로 해결해야 한다.

◇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해결= 최근 백내장은 수술과 동시에 노안과 난시를 교정하는 특수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노안·백내장 수술'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는 초점이 하나인 단초점 인공수정체 뿐이었다. 원거리나 근거리 중 한 곳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원거리를 잘 보이는 인공수정체를 선택했다면 책·신문 등 근거리를 볼 때는 돋보기를 착용해야 했다.

최근에는 초점이 여러 개인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인기다. 원거리와 근거리는 물론 중간거리 모두 선명하게 볼 수 있어, 노안까지 교정 가능하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되면 신문이나 독서, 컴퓨터 작업 시에 돋보기 착용 없이도 작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원거리도 자유자재로 볼 수 있다. 특히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은 최근 수술 연령대가 젊어지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다.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은 노인들의 활발한 사회활동·IT기기 사용 등과 맞물려 각광받는 수술 방법이며, 여러 개의 안경을 갖고 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 칼 대신 레이저로 수술= 신세계안과는 칼이 필요 없는 카탈리스(CATALYS) 레이저 백내장 장비를 이용해 환자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수치가 적용된 레이저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의도한대로 오차 없는 수정체절제 가능하다. 또 인공수정체 삽입시에도 의도한 길이, 깊이, 각도로 정확하게 삽입될 좋은 시력을 기대할 수 있다.

집도의의 눈이 아닌 3D OCT 장비를 통해 안구정보를 수집해 이를 실시간으로 반영, 정확성을 높였으며 수술 중 안구 내 기구 사용과 초음파 사용이 최소화되면서 각종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줄였다. 그 외에도 수술 시간을 단축시켜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곁을 사용하지 않아 오차 범위가 현저하게 감소했다.

◇ 나에게 맞는 렌즈 선택하기=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에서 수술방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렌즈를 선택하는 일이다. 삽입하는 렌즈의 종류에 따라 특정거리의 시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김재봉 신세계안과 원장이 3가지 초점에 맞춰 우수한 시력을 제공해주는 심포니 렌즈 수술을 하고 있다. <신세계안과 제공>

렌즈삽입 후 30~40cm의 거리는 잘 보이지만 PC와 눈 사이의 거리인 70~80cm의 거리는 잘 안 보일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시력 상태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렌즈가 있어 수술 전 환자의 직업이나 라이프스타일, 취미, 근거리 정도, 야간활동시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렌즈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거리인 40~80cm까지 연속적으로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팬옵티크 렌즈, 원거리와 근거리를 불편하지 않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테크니스 렌즈, 3가지 초점을 연속적으로 우수하게 시력을 제공해주는 심포

니 렌즈까지 다양한 종류를 내 눈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중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한 번의 수술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노안과 백내장을 해결하고 시력까지 좋아져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충장·금남 지하도상가 코로나19 방역 활동

동구, 소독기 대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지역경제가 광풍 얻어붙은 가운데 지역 상인들이 적극적인 방역활동에 나섰다.

16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사)충장상인회(회장 여근수)와 (사)금남지하도상가상인회(회장 박미란)는 지난 5일부터 상인들과 함께 상가 안전성을 알리고 고객방문을 독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독약을 구입하고 동구로부터 소독기를 긴급 대여해 개별 상가를 돌며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입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주민들께서는 과도하게 위축되지 마시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최근 (사)금남지하도상가상인회가 광주시 동구 금남지하도상가를 돌며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동구청 제공>

줄기세포 탑재 마이크로 로봇으로 무릎연골 재생 첫 성공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

줄기세포를 탑재한 마이크로 로봇을 이용해 손상된 무릎 연골을 재생하는 치료가 처음으로 성공했다.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은 최근 '스텝셀 내비게이터'(Stem cell navigator)를 이용해 손상된 무릎 연골을 재생하는 동물(토끼) 실험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연구원과 원천 기술을 이전받은 바이오트 코리아, 전남대 기계공학부,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및 영상의학과 등이 참여했다.

연구팀은 체내에서 생분해가 가능한 다공성 마이크로 구조체 표면에 직경 1.5µm(마이크로미터·1µm는 100만분의 1m)의 자성 입자들을 부착, 직경 350µm의 줄기

세포 탑재용 마이크로 로봇을 제작했다. 마이크로 로봇에는 사람의 지방에서 유래한 줄기세포가 탑재됐으며 손상된 연골 부위로 정밀하게 전달·이식된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로 분화돼 무릎 연골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했다. 최근 퇴행성 관절염 진행을 늦추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서 추출한 성체줄기세포, 연골세포와 같은 '자가 유래 세포'를 무릎 연골에 이식 혹은 주입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식약처, 비만치료제 '벨빅' 판매·처방·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 억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로카세린' 성분의 항정신성 의약품 판매 중지하고 회수·폐기하도록 하고, 의약 전문가에게는 처방·조제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제품은 일동제약의 '벨빅정'과 '벨빅엑스알정' 등 2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시행한 임상시험에서 위약 대비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조사에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철수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참고해 이렇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병의원,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